



※ 아론기금후원현황 ('19년 11월~'20년 1월)

【개인】 권구일, 김관용, 김기석, 김동규, 김민식, 김영수, 김지운, 김진수, 김진현, 김혜정, 김희선, 노철래, 목경숙, 문주옥, 민병욱, 박경옥, 박동신, 박복덕, 박영배, 박윤자, 박은희, 박정자, 서문원, 석유선, 송경희, 신명화, 신현숙, 심형섭, 양호연, 유순자, 윤정모, 이경수, 이경희, 이기동, 이상화, 이성호, 이인순, 이정자, 이조희, 임성순, 정상기, 정수자, 정원주, 조미숙, 조영석, 조 현, 차태권, 채인숙, 천광길, 최병현, 최성렬, 최점숙, 최춘희, 황효숙

【단체】 거제교회, 광명교회GFS, 구미수녀회, 노원나눔의집, 대구교회, 대학교교회, 모두애교회, 부산성직자, 상주교회, 서대구교회, 서울산교회, 여수교회, 부산주교좌교회, 부산주교좌교회어머니회

※ 수입 · 지출현황 ('19년 11월~'20년 1월)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전기이월	6,130,000	2,200,000	18,731,471	*지원처 기장교회
11월	20,091,752	2,200,000	17,891,752	모두애교회
12월	1,762,834	2,200,000	17,454,586	서귀포교회
1월	1,990,000	2,200,000	17,244,586	제주서부 개척교회
분기합계	23,844,586	6,600,000	17,244,586	교무국
연누계	23,844,586	6,600,000	17,244,586	수덕네트웍
잔액(차기이월금)			17,244,586	포항교회 서대구교회 진주산청교회

※ 후원계좌(1구좌 1만원)

농협 351-0452-3013-43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부산 101-2000-1200-01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케냐성공회 마세노웨스트교구 1:1아동결연후원



※ 아동결연후원현황 ('19년 11월~'20년 1월)

【개인】 강현순, 강 휴, 권영만, 김동규, 김애숙, 김혜정, 문규옥, 문주옥, 박동신, 박성옥, 배은진, 백은정, 성경언, 신현숙, 심형섭, 이기동, 이성호, 이에나, 이재희, 이조희, 정상협, 정원주, 주선영, 최병현

【단체】 대구교회, 부산주교좌교회, 부산주교좌교회어머니회

※ 수입 · 지출현황 ('19년 11월~'20년 1월)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1,290,000	0	1,787,817
11월	2,157,817	0	2,157,817
12월	650,482	2,400,000	408,299
1월	420,000	0	828,299
분기합계	3,228,299	2,400,000	828,299
연누계	3,228,299	2,400,000	828,299
잔액(차기이월금)			828,299

※ 후원계좌 (1구좌 2만원)

농협 301-0122-3512-31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 8:28

칭찬·격려·지지 캠페인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히브 10:24-

2020년 부산교구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건강함을 위한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께 배운 애덕(愛德)이 교회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 공동체는 보다 건강해지고, 하느님 나라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애덕 실천을 권면하고자 교구는 칭찬·격려·지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발에 묻힌 보물처럼 공동체 안에 감추어진 애덕 실천 사례들을 제보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내용이 작은 불씨가 되어 우리 교구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길이 휘몰아칠 것을 희망하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해주신 분과 애덕을 실천하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보방법 : A4용지 200자 내외, adpusan@hanmail.net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0. 3. 12. 통권 제 23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9번 길 5-1 / ☎ 051) 463-5742 / www.skhubusan.org 발행인: 박동신 / 편집인: 김대성, 사공병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며칠 전 새벽, 기도실에 들어가 촛불을 켜놓고 아침 성무일과 준비를 하다가 뭔가를 빠뜨렸다는 생각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흠칫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기도실을 바라보니, “여기가 바로 하늘 문이구나!”하는 느낌이 훅 다가왔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천사였구나, 내가 있던 이 자리에 하느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느낌..

프란시스코 영성이 다른 영성과 다른 점은 down-to-earth(현실적인, 실제적인)이라는 표현에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히 기도실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는 정좌하고 앉아 눈을 감고 깊은 관상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프란시스 성인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프란시스코 수도자의 삶은 하루 네 번의 공동기도인 성무일과와 개인기도, 영적독서 그리고 노동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느 수도자는 더 활동으로, 또는 더 깊은 관상으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불릴 수 있지만 기도와 노동, 공부는 수도생활의 세 가지 구성요소입니다. 프란시스수도회에서는 이를 ‘섬김의 세 가지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프란시스 성인은 처음 수도회를 만드실 때 수도자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공동체에 머물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면서 하늘나라를 발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도회가 존재하고 수도생활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교구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저는 작년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주최한 케냐에서의 ‘수도생활새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성공회는 선교초창기부터 수도회를 초청해서 그 역사가 백 년이 되어가지만 복음주의 성향의 아프리카성공회에는 수도전통이 없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어느 케냐사제는, 이렇게 풍성한 교회의 전통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성을 지닌 기도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수도회는 교회의 보호 아래 존재 가능하고 수도생활은 교회 안에서 영적생물을 길러내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

에서 나온 샘물은 다시 교회로 흘러들어가야 하지요. 바로 이 때문에 수도생활의 핵심인 성무일과 시간에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수도회의 중보기도리스트는 넓고도 촘촘한 그물과도 같아 우리가 겨안을 수 있을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청원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향처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느님이 기뻐 받으실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응답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식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결과를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느님의 응답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하는지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내내 기도해 온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안도의 숨이 뱉어지며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스며 나오면 그 때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 찾아온 것 같고 아무런 느낌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빛이 보일 때까지 어둠의 시간을 더 걸어가면서 내내 기도해야겠지요.

이렇게 보면 수도자의 사순절은, 어느 절기의 시간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경과의 흐름대로, 전례를 따라가면서, ‘여기가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임을 순간 순간 깨달으며 현실세계의 씨실 날실을 채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믿습니다.

박젬마 수녀(구미 성프란시스수녀회)



동래교회 대림절 신앙특강



〈특강에 참석한 동래교회, 모두애교회, 으뜸어린이집 교사들〉

동래교회(안균희 사제)는 지난 해 12월 15일 이주엽 사제(성공회 대학교)를 강사로 초청하여 '성공회 신앙의 이해'를 주제로 대림절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을 통해 성공회의 역사적 기원과 영성, 신앙의 특징 등을 다루며, 교회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목학교 특강



〈특강을 진행하는 한희우 사제와 특강에 참여한 성직자들〉

부산교구는 1월 14일(화)에 교무국 회의실에서 홍콩성공회 소속 사제이며 설교학 박사인 한희우 사제를 강사로 초청하여 “설교를 향한 사제의 고민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사목학교 특강을 개최하였다. 한희우 사제는 ‘팀 켈러의 설교’를 교재로 삼아 복음중심의 통찰력 있는 설교로서 강해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설교자의 삶과 인격에서 성령 하느님의 임재를 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회선교기관 연석회의



〈회의에 참석한 기관 실무진〉

부산교구는 2020년 2월 18일(화) 사회선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부산교구 산하 사회선교기관의 법인등록 현황과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정비, 법인 통합결산에 따른 행정절차와 역할, 장애인고용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등과 관련하여 황미영 교우(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부산교구는 변화하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에 맞추어 지역선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교구 어머니연합회 신년수련회



〈부산교구 어머니연합회〉

부산교구 어머니연합회는 1월 10일(금)과 11일(토) 이틀에 걸쳐 ‘한 알의 밀알이 되자(요한 12:24)’을 주제로 양산 성분도의 집에서 신년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수련회를 통해 이성호 요한 사제의 신앙강좌가 진행되었고, 작은 바자회와 임원회의 등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수련회의 마지막 날은 교구장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의 집례와 설교로 폐회 감사성찬례를 드렸다.

성직청원자 초청의 날



〈성직성소위원들과 성직청원자의 면담 장면〉

부산교구는 1월 22일(수) 부산주교좌성당에서 성직청원자 초청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1부 감사성찬례(집례, 설교 천제욱 요셉 사제)와 2부 개별 면담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부제성직자 3명, 성직지망자 3명, 성직희망자 3명, 그리고 전입희망자 2명 등이 참여하여 교구장과 성직성소위원 면담, 타교단 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USPG 아시아 담당자 부산교구 방문



〈부산교구 교구장 박동신 주교와 USPG아시아 담당 레베카 보드먼〉

지난 2월 6일, 영국성공회 USPG(United Society Partners in the Gospel) 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레베카Rebecca Boardman는 부산교구를 방문하였다. 레베카 신임 담당자는 아시아 지역의 현황을 둘러보는 가운데 대한성공회를 방문하여 서울, 대전, 부산의 3개 교구에서 일정을 소화하였다. 신임 담당자는 특별히 부산교구에서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와 면담 후 지진으로 인해 재건 중인 포항성당의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

코로나19에 맞서는 대구의 그리스도인들

현재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 대구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에 서대구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주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고자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와 뜻을 함께하는 대구지역 개신교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현재 “대구경북기독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구경북기독교연합”은 현재 뜻이 있는 지역시민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 나누고, 여러 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쪽방촌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공회 교무원 등 각계에서 보내 온 후원금과 후원물품들을 가지고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서대구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서대구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성 바르나바 부제는 이러한 작은 노력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 위기를 극복할 희망을 발견한다며, 많은 교우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희망의 빛을 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교구 기도문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로 인해 별세한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주셔서
당신이 허락하신 일상과 가족들에게로
하루 빨리 건강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기억하오니,
그들을 당신의 굳센 날개 안에 지켜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누군가를 탓하기 보다는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돕게 하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소서.
하루 빨리 우리들에게서 이 병마를 거두어 가 주시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당신을 찬양하며,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 교구인사발령

성명	신명	직위	발령사항	시행일자
주근희	안나	실장	면: 기장지역자활센터 실장 명: 동구지역자활센터 실장	2019.11.01
이성호	요한	사제	면: 교무국장(겸직) 명: 중앙교무구 총사제	2020.01.03
안균호	예레미야	사제	면: 선교교육원장(겸직), 중앙교무구 총사제 명: 교무국장(서리, 겸직)	〃
사공병도	베드로	사제	명: 선교교육원장(겸직)	〃
김민식	멜기세덱	부제	면: 교무국 총무부장, 주교좌교회 협동부제 명: 북부교무구 청년선교담당, 교무국 회계담당(겸직), 서대구교회 협동부제	〃
김성완	분도	전도사	명: 거제교회 전도사	〃
곽무호	여호수아	전도사	명: 교무국간사, 사천지역교회계적담당(겸직)	〃

성명	신명	직위	발령사항	시행일자
권희연	미카엘	은퇴 주교	면: 서귀포교회 촉탁사제 명: 제주한일우정교회 촉탁사제	2020.02.10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	명: 제주한일우정교회 관할사제	〃
원성희	아모스	사제	면: 제주도지역 교회개혁 담당사제 명: 서귀포교회 관할사제	〃
김동규	분도	사제	면: 제주교회 관할사제 명: 성분도의 집 원장	〃
이성호	요한	사제	명: 교구 성직고시 위원	2020.01.23
천제욱	요셉	사제	명: 교구 성직고시 위원(위원장)	〃
안균호	예레미야	사제	명: 교구 성직고시 위원	〃
노현문	다니엘	사제	명: 교구 성직고시 위원	〃

* 2020년 3월~2020년 5월 활동계획

■ 춘계제

* 성직후보자 기도와 장학기금 모금 주간(3월 8일, 주일)

■ 제 48차 성공회 중보기도회

* 3월 22일, 주일 오후 3시(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

■ 성유축복예식

* 4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주교좌성당

■ 해외 성공회 관련 일정

* 영국성공회 KMP 내한, 일본성공회 중부교구 방문,
영국성공회 연수(4월 27일~5월 6일),
부산교구 사제단 규슈교구 방문(6월 예정)
피터버러교구 내한(5월 20일~28일)

■ 제 276차 교구상임위원회의

* 5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 교무국 사무실